

16. [출제의도] 광복 후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 지문은 한국 민주당이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이하 미소공위)의 협의 단체 모집에 참가 신청을 선언하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임시 정부 수립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신탁 통치가 임시 정부 수립 후 민족적 총의로써 반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 지문은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328p 18~23줄, ‘알아봅시다’ 파트에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실제 자료를 일부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 지문은 2차 미소공위가 열리고 단체 모집을 받고 있을 때에 적힌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미소공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제1차 미소공위에서 좌우 단체들의 참가 모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7종 교과서를 모두 찾아볼 여력이 없었던 탓에,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본인 포함)이 보는 EBS 교재에서 그 근거를 따와 연계문제화 하였습니다. EBS 교재는 기본적으로 7종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한 수능 참고서이기 때문입니다.

EBS 수능특강 한국사 17장 162p ‘개념플러스’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공위는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할 대상으로 정당·사회 단체의 등록을 받았다. 상당수 우익 세력도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정부 수립 뒤 민족 총의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공동 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출처, EBS 수능특강 한국사

굵은 글씨 처리된 부분은 (가) 지문의 “이로써...모색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중대 사명에 비추어 미소공위의 협의 단체 모집에 참가를 결정한다.”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셨다면 개념플러스의 내용이 그대로 (가) 지문에 녹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족 총의 부분은 제가 들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EBS 연계 체감을 더 높이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사실 2014수능 한국사 14번 (가) 지문 소위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한국 국민당의 정확한 창당 시기도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 지문은 제2차 미소공위가 열리고 정당·사회 단체 모집을 받을 때에 적힌 지문입니다.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제2차 미소공위가 개최되었구나’는 것을 잡으셨으면 됩니다. 선택지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를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수능 한국사 14번 또한 그런 맥락에서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문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선거”라는 말에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를 결의한 이후임을 알 수 있으며, ‘미국·소련 중 어느 한 나라가 총선거를 반대하더라도 총선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볼 때 소련이 북한에 입북을 거부한 이후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미소공위를 2번씩이나 열었는데 3국 외상 회의 결정 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유엔에 한국 문제를 상정했는데, 갑자기 유엔이 결정한 총선거[정부 구성]를 반대할리는 없겠죠?)

정확한 시기는 1948년 1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했으니깐요)

(나) 지문 마지막에 “미군이 점령한 이 지역에서...”라는 말이 나와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승만이 단정론을 제기하던 때에는 ‘총선거’를 건의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찾지 못한 자료에서 1차 미소공위 때 총선거를 결의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도(사실 있지도 않을겁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1차 미소공위 때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의한 사실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지문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입북 거부당한 후 적힌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단정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유엔 소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때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단체들은 어떻게든 북한과 협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다시 말해서 “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유엔 ‘총회’(소총회 X)의 결정 사항을 실천하려고 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ㄷ은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의 사실이며, ㄹ 또한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 ㄷ과 같은 단정론이 대두되자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의 사실입니다.